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36>



세속의 행복은 죄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자기는 열심히 일할 생각이 없고 그 돈만 노리고 있다가 훔쳤습니다. 자, 악업을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경전강의 시간에 이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답은 당연히 후자입니다. 나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던진 것이 좀 미안하였습니다. 그런데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강생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는데 참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미숙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려분, 누가 악업을 지은 사람일까요?” 나는 다시 한번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외로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돈을 번 사람이 죄인입니다. 남에게 훔치려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으니까요.”

“네,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진짜요? 진짜로 돈을 열심히 번 사람이 죄인입니까?”

“네.” 사람들의 얼굴표정은 그제야 밝아졌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니 그 죄에서 벗어난 출가

경전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부처님이 돈벌지 말라는 말씀을 하신 곳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정당하게 돈을 벌어서 그것으로 좋은 일 많이 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앞서 언급한 수강생들의 대답대로라면 부처님은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권하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재물이란 것을 맑고 서늘한 연못의 물과도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주 퍼올리고 써야지 물이 마르지 않듯이 재물이란 것도 부지런히 벌어서 자기도 열심히 쓰고 남을 가엾이 여겨서 자꾸만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넓은 들판에 맑고 서늘한 연못이 있어도 그것을 즐겨 퍼 올리는 이 없으면 이내 고스란히 말라버리고 만다. 이처럼 훌륭한 값진 재물도 나쁜 사람이 지나게 되면 자기도 쓰지 못하거나와 남을 가엾이 여겨 베풀지도 못하여 부질없이 스스로 괴롭게 모으기만 하고 그렇게 모으다가는 저절로 잃고 만다.”

게다가 열심히 번 돈으로 그 누구보다 먼저 자기 자신의 행복을 누리려는 당부의 말씀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많은 재물을 얻으면 자신도 쓰면서 즐기고 부모를 봉양하고 처자와 친척들을 돌보고 자기

열심히 돈 벌어 행복 누리는 것이 죄스럽나요 “자신위해 즐겁게 쓰고 보시하라” 하셨네요

분한 기색이 역력하였습니다.

불자들은 ‘돈을 번다는 것’, ‘내가 행복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타인에게 미안해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그런 사실을 대놓고 말하기를 꺼려하고, 집안이 화목한 것도 남들에게 몹시 미안해합니다. 아마 ‘집착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라는 마음 다스리기의 법문들을 많이 들었을 때문일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하면 꼭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어떤 잡귀가 있기에 삼가려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사실 경전을 보아도 부처님은 온통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법문만 늘어놓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진다는니, 그건 화를 불러오는 재물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는니...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말씀들은 대체로 출가 수행자에게 하신 법문이고, 또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재물을 끌어모은 이들에게 하신 법문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잡아함경>을 보면 부처님은 재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정당하게 돈이나 재물을 구하고 그것을 보시해서 복을 구하라. 남에게도 베풀고 자기도 누리며 또 그것으로 복덕을 지어라.”

가 부리는 사람들도 도와주고 베풀게 보시하며 수행자들에게 공양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천상에 태어날 것이다. 몇 배나 큰 이익을 거두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많은 재물 얻으면 자신도 즐기며 잘 쓸 줄을 알고, 널리 보시해서 공덕도 지으며 천축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베푼다.”

내가 먼저 행복해져야만, 그리고 그 행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지만 다른 이의 행복도 빌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넘쳐흐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이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남에게 베풀어야 하나? 그래서 남이 행복해지면 그것 역시 죄가 아니니까?

남의 것을 빼앗아서 얻은 즐거움, 여색에 빠지거나 그릇된 대상에 탐닉하는 즐거움은 부처님이 권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만 명심하면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내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사는 일- 이것은 결코 죄도 욕심도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아람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 이미지(중국경원역역권위판)

부처와 조사의 ‘스승’ 이 되는



10월 16일 통도사 취운선원에서 열린 '설선대법회' 입제식에서 취운선원장 약산 스님은 조사선의 도리를 깨달으면 누구나 대도인이 된다는 말씀을 강조했다.

약산 스님 지상 백고좌 (통도사 취운선원장)

신의 법상을 나눠 앉게 한 후 금관가사를 함께 두르게 해 한 몸을 지었습니다. 백만 대중은 그저 보기만 할 뿐 그 묘한 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도리가 부처님이 첫 번째로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둘째는 영축산 영산회상입니다. 천상의 꽃을 공양한 대법천왕이 법문을 부탁하자 부처님이 설법을 했습니다. 부처님은 가만히 꽃을 들었습니다. 백만 대중들은 부처님이 꽃을 든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가섭존자만이 그 뜻을 알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부처님은 “여래에게는 정법안장 열반묘심이 있는데 가섭존자에게 부촉한다”며 바리때와 가사를 전해주었습니다. 대중들은 바리때와 가사를 봤지만 도저히 법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선의 묘한 이치를 전해준 도리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이 45년 설법을 마치고 구시라성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때도 가섭존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섭존자는 신통을 부여 단숨에 갈 수도 있지만 일주일을 걸어 구시라성까지 갔습니다. 도착한 가섭이 부처님의 관주위를 세 바퀴 돌고 법구 앞에 서자 부처님이 두발을 관박으로 내미셨습니다. 대중들도 그 모습을 보았지만 발을 내민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사성팔정이나 사마타 삼마팔계 선나가 선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세 번 설한 진리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선은 이렇게 ‘삼처전심(三處傳

선의 근본은 無음으로 설한 ‘삼처전심’ 법 하나인데 세 번 전한 이유가 있었을까

心)을 근본으로 하고 선의 종지로 삼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세 번 설해야 했을까요? 마음이 셋이 아닌 일심이고 법이 하나인데 세 번 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도리를 확연히 깨우쳐야 합니다. 삼처전심의 도리를 확연하게 알아야 진짜 선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선은 주로 ‘자아를 밝혀라’ ‘주인공을 밝혀라’ ‘본분사를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진리를 물으면 입이 딱 막힙니다. 공부할 것은 이런 것들인데 우리는 수박 겉핥기로 공부할 뿐입니다. 그저 ‘좋은 일을 해라’ ‘좋은 말을 하라’고 하는 데 이런 것으로는 종교가 될 수 없고 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도를 새롭게 관철하고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삼처전심한 도리를 깨달아 알 때 우리 자신이 부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부처를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홀연히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6년 고행을 할 때도 매일 별이 떴을 것이고 보리수 밑에서 48일 수행을 할 때도 별이 떴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날에 홀연히 뜬 별을 보고 도리를 깨우쳤을까요? 오랫동안 수행을 하던 부처님이 그때 한 경계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처럼 참선을 하다가 한 경계나 도심을 보고 홀연히 깨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과 똑같은 깨침입니다. 부처님이 훌륭하다, 우리가 못하다 할 게 없습니다.

선은 부처님이 별을 보고 깨진 도리를 즉각 깨치기 위해 하는 겁니다. 이외 다른 방법으로 선정을 두고 입장을 소멸해야 깨달음이 온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부처님은 도를 깨친 후 “여래가 깨진 도리는 내가 만들거나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진리가 법에 본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깨친 자가 부처님입니다. 깨달음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법을 깨치면 부처님보다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물론 스님이

불교지도자와 재가불자를 위한 불교강좌 경기북부 교양대학 제4기생 모집

1. 대학설립 취지 전통불교의식을 체계적으로 전수하여 어렵게 전통의식을 생활불교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자(스님, 교인, 포교사)를 양성하며, 기초불교교리 강좌등을 통해 불교의 대중화와 대중화합 불교사상을 널리 펴서 진정한 불국토를 이루는데 있음.

2. 교과목 ●전통의식반 (제공의식 포함) 주 1회 (금요일) / 시간 : 15:00 ~ 19:00 ▶ 기초 (사물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각단예불, 제공의식) ▶ 연구 (제공의식, 현장실습) ●생활역학 주 1회 (월요일) / 시간 : 15:00 ~ 19:00 ●서예반 주 1회 (화요일) / 시간 : 15:00 ~ 19:00

3. 교육기간(6개월) ●원서접수 : 2005년 9월 20일 ~ 10월 20일 ●개강일시 : 2005년 10월 25일 (금요일)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봉, 주민등록등본 1봉, 반명함판 사진 3장

4. 특 전 본대학은 조종파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 수여와 사찰 및 포교당 창건지 지원 및 편의제공 본대학 전통의식과정 졸업자가 지도자과정으로 입학 할 경우 입학전형에 특전부여

5. 문 의 경기북부중무원 부설 교양대학 교무처 전화 : 031)864-0033 팩스 : 031)864-0103 경기도 양주군 남면 매풍리 380번지 기원정사

시간안내 ●제 목 : 불교범음의식집 ●저 자 : 백설은 스님 ●출판사 : 이화문화출판사 ●금 액 : 35,000원 ●구입문의 : 031)864-0033

한국불교 태고종 경기북부 중무원 부설 교양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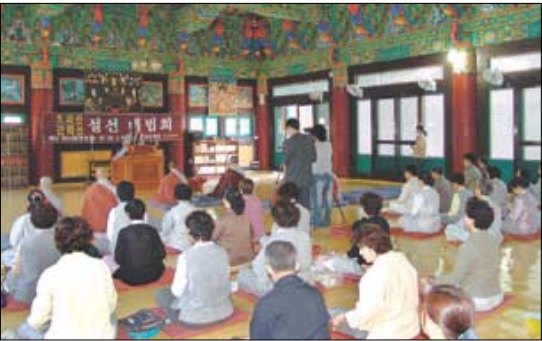
불교와 문화 www.buddhistculture.co.kr

2005년 9·10월호 주요 내용 재가불자가 알아야 할 불교교리 A에서 Z까지 총편 스님의 기초교리 - ④ 5론(五論), 5력(五力), 12제(十二處), 18계(十八界) 지상종재 (제)대한불교진흥원 설립 30주년 기념 대원 경경호 거사 30주 기 추모 법회 이 땅의 불교진흥, 그 영원한 화두를 위하여 범장 스님 법어 '불교진흥의 참뜻 잊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특집 | 멀티미디어시대, 불교 영상교과 어떻게 해야 할까 미래불교의 주역인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불교 뉴미디어의 필요성은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왜 불교 영상교과가 필요한지와 신체의 기교에 선 불교 영상교과와 생활과 해인 과정을 살펴보고 방송 전문가를 통해 불교계의 영상교과 발전을 들어보았다. 왜 불교 영상교과가 필요한가 선택의 기묘에 선 불교 영상교과와 현황 및 과제 멀티미디어 시대, 불교계 영상교과를 위한 출몰 장르대담 | 활안의 선지식에게 듣는 수행한담 5. 조계산 천지안 조성 원안(5.25) 스님 수행Q&A | 수행에 대한 궁금증을 묻는다 화두찬신 수행 · 위배사나 수행

격월간 「불교와 문화」 전화 02-719-2606

도리 확연히 깨쳐야

그렇게 법문을 했다고 여러분이 당장 부처님과 같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부처와 조사의 스승이 되는 원리에 대해 설하겠습니다. '어떻게 부처님보다 훌륭해질 수 있는가'란 의문이 들지요? 부처님 경전 안에는 '부처가 뜰 앞에 잤나뭇다' '삼서근이다'는 말이 없습니다. 부처와 조사가 주장자를 들어 보이는 도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부처의 스승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면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주장자를 들지도 내리지도 않는 공부입니다. 그런 사람이 대도인인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삼차전심의 법을 설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훌륭한 신자라 해도 짙에 금방 은 요즘 신자만도 못했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 삼귀의 오계만을 설했습니다. 요새는 처음 은 신도도 삼귀의 오계를 알지 않습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십선업(十善業)을 뒤아서 그 그대로 좋은데 태어나게 하는 게 신도교육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고차원적으로 참선을 가르치거나 화엄경을 설해줄 수 없었습니다.



약산 스님은, 10월16일 통도사 취문선원에서 입제법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20년에 걸쳐 재가불자들을 위한 간화선 조사선 설선대법회를 연다.

불교는 가섭존자 등 조사를 거쳐 중국으로 오면서 끊임없이 발전했습니다. 육조 스님까지 왔을 때의 법은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인 도리와 같았습니다. 그 이후 선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스님들이 배출되면서 선의 묘를 살린 조사선이 발전하게 됐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여래선이 높고 조사선이 낮다고 합니다. 여래는 부처님이고 조사는 스님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스님이 부처님보다 높아질 수 있냐고 생각합니다. 나는 조사가 여래보다 나으며 나았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뭐냐? 중국 불교가 선을 전문으로 연구해서 선의 극치를 이뤘기 때문입니다. 조사선에서 간화선이 나왔습니다. 간화선은 중국에서 선을 표현하는 한 방법입니다. 항상 같은 소리를 하면 공부를 안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처가 마른 통박대기다' 이렇게 해야 그 도리와 법에 기백이 생깁니다. '부처는 청정법신인데 어찌 통박대기가 되는가' 라는 큰 의의가 생기고 그렇기에 그 의심을 풀기위해 웅맹정진으로 공부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회두를 깨치면 부처가 될 수 있지만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두를 깨쳐도 조사선을 모르는 이가 많습니다. <전등록>에 나오는 3600여 도인 중 조사선을 깨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조사선을 알려면 상당한 안목과 이해력을 갖춰야 합니다. 선에는 묘한 도리가 많습니다. '활인검 살인검(活人劍 殺人劍)' 등이 모두 선의 묘한 도리입니다. 그런 도리는 주인공 하나만 알아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도리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야 대선지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 이 약산이 조사선과 여래선의 차이를 이 주장자 도리로 보여줍니다. 부처님 선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외도선(外道禪)과 범부선(凡夫禪), 소승선(小乘禪), 대승선(大乘禪), 연각선(緣覺禪), 최상승 조사선(最上乘 祖師禪)입니다. 외도선과 범부선은 전부 어리석은 선입니다. 여기서는 '주장자가 그냥 있다'고 봅니다. 한발자국도 불법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외도선은 내가 있다고 봅니다. 내 육신을 구속하고 고행해서 '나'는 영원히 자비와 평화를 누리야겠다고 수행을 합니다. 범부는 어리석게 원가를 소유하려 합니다. 소승불교를 뒤은 아라한은 이 주장자를 공(空)으로 봅니다. 성문승을 아라한(阿羅漢)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부처님의 법을 듣고 아라한과를 얻어 멸진삼매에 들어갑니다. 티베트불교도 여기에 속합니다. 티베트불교가 최고 바라는 것이 린포체로 환생하는 일입니다.

조사선에선 “다만 주장자라고 부를 뿐” 상당한 안목과 이해 갖춰야 조사선 알게 돼

연각선의 깨달은 도리는 어떤 것이냐? 이 주장자를 연기된 것. 그림자 꿈 거품 같은 환상이라고 봅니다. 부처님이 설한 도리가 이 법칙입니다. 연기의 법문은 아무리 들어도 성불할 수 없습니다. 대승보살은 어떻게 이 도리를 보느냐? 거기서는 주장자 자체가 공이라고 봅니다. 부처님의 경지가 여기입니다.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 조사선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조사선이 여래선만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어리석은 말입니다. 조사선에서는 이 도리를 "다만 주장자라고 부를 뿐이다"고 봅니다. 이게 더 발전되고 선의 극치를 이루는 도리입니다. 우리는 선을 이렇게까지 알아야 합니다. 선종이 어떻게 법성이 이렇고 불성 지체가 이렇다고 해서 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중생들은 부처님 경전 중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됩니다. 경전은 모두 중생을 위해 설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엄경 같은 경전에는 가섭존자 같은 깨달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조사선도 경전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과거의 선보다 한발자국 더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한 단계 더 높은 안목을 얻어서 새로운 공안을 형성해야 합니다. 제가 앞으로 20년 동안 이에 대해 하나씩 법을 설하겠으니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리 · 사진/통도사=강원식 기자



금담 스님의 스님이 이야기

도명 스님

최근, 우리 사회는 남벼를 불문하고 유난히 성형 수술을 많이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하기 때문이란단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신들의 실제 모습은 서서히 잊어가며, 알 수 없는 미래의 상상속에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도 같다. 그런데, 어느 성형수술 중독자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 백날 고치고 치장한들 만족할까 싶다. 고철수룩 치장할수록 자꾸 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이다. 어차피 인간이란, 아무리 가리고 가려도 태어남 그 자체부터가 피부성이 인생 아닌가. 나는 승승을 막론하고 치장하지 않은 순수한 사람을 보면 친근감이 느껴진다. 아마 그런 것은

저 있기는 해도, 철길 독일에 위치하였고 천막으로 만들어진 인법당이였다. 보기만 해도 수행정진은 물론 살기에 불편해 보였다. 그러나, 객을 맞는 노스님의 꾸밈없는 모습은 저절로 도망을 환하게 바꿔놓았다. 손수 차대접을 해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따뜻하고 다정해 마치 자비보살(慈悲菩薩)을 친견하는 듯 했다. 나는, 훌륭한 스님을 그저 겉대기만 보고 찾아다닌 듯하여 왠지 송구한 생각이 들어 <금강경(金剛經)>의 '若以色见我 以音聲求我 是人行邪道 不能见如来'란 구절을 새겨보았다. 또한 차담(茶談)을 하면서 더욱 놀랐다. 연세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직시하는 안목이 비상했고 수행관 또한 깊었다. "도(道)라는 것이 산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자리에 있다." "절이라 하는 것이 꼭 꼭꼭 붙어야 하나? 쓰러져 가는 토굴이라도 열심히 정진하는 수행자가 있고,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고뇌로부터 자유로움을 줄 수 있는 도량이라면, 그러한 기도처가 어디 있겠는가."

세수 80에도 씩없이 지역복지사업 헌신

이렇게 말씀하시며, 스님들이 중생구제의 원력을 어디 멀리서 찾지 말라고 하셨다. 자기가 처한 지역에서부터 그리고 작은 일부터 이타행(利他行)을 하라고 권했다. 이후 도명 노스님께서는 일산에 동국대불교병원이 건립된다는 말을 들으시고는, 우리 지역에서 불교연합자원봉사단을 결성하자고 하셨다.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며, 불교적인 정서를 확산하면 지역의 전법사로 포교에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스님의 말씀을 듣고, 뜻을 같이한 9명의 스님들이 2002년에 사단법인 천수천안자원봉사단을 창단했다. 지금까지 끊임없이 전문자원봉사 교육을 실시하여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천여명의 자원봉사자를 배출하였다. 도명 노스님은 세상을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신다. 우리 사회의 참여와 협력, 정신적인 지역 사회를 만들어 가려 앞장서신다. 그리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입구에서 좋은 도반을 만나고 는 밝은 스승의 인연을 맺어주려고 노력하신다. 스님의 이러한 마음을 엿보노라니, 자신의 육신마저도 보시하여 굶주린 사람을 구하고자 원력이 가득했던 대승보살의 모습이 겹쳐진다.

금담 스님은 1974년 사미계, 75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흥국사 주지, 경찰청 경승실장, 한국·티베트불교친선교류협회 회장등을 역임했다. 현재 남양주 무량사 주지와 남양주·구리 불교사암연합회 공동회장, 남양주·구리 천수천안자원봉사단장을 맡고 있다.



그림·문병성

다양한 환경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사람들의 솔직한 모습이 사람들 감동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수행이라는 것도, 치장하지 않은 자성(自性)의 본래 모습을 찾자고 하는 것 아닌가. 도명 노스님도 그러한 수행자다. 세수 80의 노구(老耄)에도 뒷방에서 쉬겠다는 생각보다는 부처님의 동체대바사상을 실천하려고 동분서주하는 분이시다. 후학들과 함께 지역 사회의 복지사업에 열정을 갖고 활동하시는 노스님의 모습을 보노라면 저절로 '큰스님'이라고 부르고 싶다. 도명 스님은 문도가 많거나, 사격(寺格)이 커서 큰스님이 되신 것은 아니다. 진정 중생의 아픔을 같이 아파하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려는 마음에서 사회적 실천에 앞장서신다. 따라서 후학들의 가슴속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받고 있다. 도명 스님을 처음 알게 된 것은 90년대 초반이다. 당시 내가 살고 있던 지역에서 그리 멀지않은 곳에 노스님이 한 분이 수행하신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었다. 토굴이라 하여 산중을 연상하며 그곳에 있는 수행자에 대한 감상적인 생각이 없지 않았는데, 막상 찾아가 보니 이러한 생각은 일시에 무너지고 말았다. 주택가 인근에서 약간 떨어진



20년간 이어질 '재가자 위한 설선대법회' 진행

약산 스님은 1940년 생. 1955년 통도사에서 율하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 61년 범어사에서 등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제방선원에서 50여 안거를 성만하고 84~90년 통도사 보광선원장, 1994년 통도사 강주, 1999~2001년 영축총림 통도사 부방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5월부터 통도사 취문선원장을 맡아 재가불자들에게 선을 가르치고 있다.

약산 스님은 출가생활 50년 동안 집대성한 <선문대전>을 토대로 10월16일부터 향후 20년간 에 걸친 설선대법회를 연다. 매월 첫째와 셋째 일요일 법문을 하고 내년부터는 매주 법문을 할 계획이다. 교재로 사용될 <선문대전>은 한문 200만자에 원고지 1만매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중국불교부러 한국불교에 이르기까지 선의 모든 내용을 약산 스님이 직접 집필했다.

Wellbeing Life

장혜명 스님께서 15년간 환경보존연구와 미생물(효소) 연구 끝에 직접 생산하신

건강기능식품인 효소발효제품

아로하, 향적당

신진대사 활성화
장내플로라 개선
체질 개선

→

활력있는 삶
웰빙 라이프

엄선된 국산의 유기농산물에
미생물(유산균)을 배양 발효시켜 효소,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등이 풍부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연대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 아로하 : 1개월분 (270캡슐) 12만원
- 향적당 : 1개월분 (270캡슐) 24만원

장(腸)이 건강해야 전신이 건강할 수 있다!

전국 소자본 대리점 모집 (부처님 제자이시면 더욱 좋습니다)

■ 제조 및 판매 : **☎선농BIO식품(주)**

■ 본 사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매 2동 1219 ■ 공 정 : 충남 홍성군 은하면 덕실리 342-8

■ 홈페이지 : <http://www.sunnong.co.kr> ■ 소비자상담실 : 042) 531-0026, 531-0027 / FAX 042)523-3316

*효소는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안과 밖에서 여러 생화학작용의 촉매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세포는 더욱 더 활발하게 해주고, 비정상적인 세포는 도움을 주어 세포의 생체활동에 기능적으로 관여하는 아주 중요한 물질입니다. 5000여종의 효소는 소모되어지기 때문에 보충해주어야 합니다.

미주 한국 불교 포교 40주년기념 **HONOLULU, HAWAII**

제 1회 한·미 불교인 심포지움과 친선 체육대회

천혜의 자연! 하와이에서 불자님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하와이 정법사에서 미주 포교 40주년을 맞이 하면서 한국불교 미국속의 역할과 뿌리를 내리기 위한 방법과 모색을 위하고 불자님들의 한·미간 교류를 통하여 정체성을 다지고 나아가 상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심포지움을 개최 하오니 많은 불자님들의 배전의 성원과 많은 참석 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와이 불교 심포지움 & 골프 및 관광 6일 2005년 11월 30일 출발

제 1일 (11월 30일) 하와이 호놀룰루, 한미 불교인 축하 민찬법회 참석
제 2일 (12월 1일) 한미 불교인 친선 골프대회장 이동(Prince Golf Course Rounding), 시상식 및 만찬
골프장 미참석시 관원(바람산, 주정부처사, 이올리니 왕궁, 가메하메하대왕 동상 관람, 호놀룰루 시청등 관광
제 3일 (12월 2일) 오하우섬 일주관광
제 4일 (12월 3일) 자유시간(이키키해변 해수욕장 해암스포츠 선택관광)
제 5일 (12월 4일) 호텔 체코아웃 호놀룰루출발 인천국제공항 도착

심포지움

일 시 | 2005년 11월 30일 (수요일) 하와이 현지시간
장 소 | 힐튼 하와이안 빌리지 호텔 북동 볼룸(호놀룰루 하와이)
주 제 | 1) 한국불교 미국속의 동포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2) 한국불교 미국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한 방법 모색
토 론 | 황광 스님 (뉴욕 불광사 주지 스님)
총연병 | 정원스님(웨스트 대학 교수)

친선체육대회(Golf)

일 시 | 2005년 12월 1일 (목요일) 하와이 현지시간
장 소 | 하와이 프린스 골프코스
특별참가자 | 불자님중에 현역 여자 프로골퍼와 가수, 모델등등 다수 참가 예정입니다.
시상식 및 저녁만찬 | 가) 하와이 프린스 골프코스 클럽하우스
나) 흥민원상 파 3홀 3곳에서 상금 각 US \$10,000 1곳에서는 맨즈승용차 제공, 우승, 메달리스트, 준우승, 톱기스트, 니어링스트, 행운상등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경기는 샷전과 펠러웨이 방식입니다.

1인 149만 5천원 선착순 80명만 ■ 축하민찬법회 참가비 (\$100), 골프대회 참가비(\$150), 필라 증식 (1회)요금은 별도입니다.
■ 항공료, 호텔 숙박비 및 식사, 차량, 안내원, 여행자보험(1억원),공항세, 유류 할증료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접수처 (주)미문여행사 : 02)722-8111 | 투어오문여행사 : 02)736-2000 | 시티여행사 : 02)737-4757